구동에서

1류 아니라면 2류 만이라도

김 종 민
논설실장

조금 늦은가 싶던 매화도, 벚꽃도 유독 아름다웠다. 울긋불긋 철쭉이 또 도심 곳곳을 물들였다. 봄은 늘 그렇다. 지친 마음에 잠시 쉼을 선물한다. 우리 정치도 환히 꽃필까. 문득 드는 생각이다.

고물가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금(金)사과와 대파로 대표되는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은 여전히 높다. 식품류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장보기가 무섭다. 4·10 국회의원 선거 뒤 공공요금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 유가와 환율도 출렁인다.

수드러들던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또 다른 전쟁이다.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반도체 수출 반등에 따른 경기 회복의 불씨가 위태롭다. 백성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일 잘하는 정부, 열심히 뛰는 국회에 대한 바람은 한결같다.

투표는 해야 했다.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정부 독주 심판 대 의회 독점 심판의 대결이었다. 선거는 끝났다. 22대 총선이 남긴 시대적 과제는 국민의힘의 빨간색과 더불어민주당의 파란색으로 대비되는 동서 분할의 청산이다.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국민적 불안을 치유해야 한다. 서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펼쳐주길 바란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보다 깊다. 절제된 언행을 해야 한다. 품위 있는 말이 좋은 정치를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영수회담부터 시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마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명령이다. 의미있는 성과를 내놔야 한다. 형식적이거나 일회성은 안 된다.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 경제·안보 위기에도 정치 양극화는 강화됐다. 포퓰리즘 식 돈풀기 공약에 앞다투고 적대감으로 상대를 무릎 꿇리고자 사생결단이었다.

선거운동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 너무 못한다.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고 말했다. 결국에 여당이 최악의 논쟁에서 졌다. 전체 300석에서 200석 가까운 야권의 압승이다. 윤 정권의 불통에 대한 회초리다.

민주당의 텃밭이라 할 만 했다. 진보와 보수로 지지세 결집이 가속되면서 광주와 전남은 일찌감치 판세가 결정됐다. 경선이 끝나면서 본선 승부는 무의미했고, 후보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 또한 무관심 그 자체였다.

즐길거리 하나 없던 축제였다. 소리만 요란했다. 호남의 존재감은 사라졌다. 인구 감소의 영향이긴 하지만 유권자 수도 줄어 진보세력의 거점이면서도 지분이 쪼그라들었다. 변방으로 차츰 내몰리고 있다.

비례 투표에서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것은 바로 심화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한 전략적 한 수다. 선명성 있는 대여 공세를 위해 협력하는 한편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민주당은 잘하지 못했다. 기대에 한참 부족했다. 그래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소야대의 지형이 더욱 견고해졌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로 3당으로 뜬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이와 무관치 않다. 협치에 기반한 대의 정치의 실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에 전력해야 하겠다. 승자 독식주의에 취하면 부메랑이 된다. 개혁 입법과 민생 안정에 올인해야 한다.

패자인 국민의힘은 겸손한 자세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도 공정, 상생의 원칙으로 쇄신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레 국면전환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겨야 한다.

광주 지역구 의원은 8명, 전남은 10명이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소멸 해법, 지역경제 활력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가장 우선해 풀어야 할 현안이다.

민심은 단단히 성나 있다. 5월30일, 4년의 임기가 시작된다.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그 이전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다.

'우리나라 정치는 4류'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직설은 강산이 세 번 바뀔 세월이 지났어도 아직 진행형이다. 찬란하면서 잔인한 4월도 간다. 1류는 아니더라도 2류 정도는 돼야 한다. 국민들의 생각도 여기에 미치고 있다.

기 고

무안국제공항, '보물단지 공항'기대 크다

박 창 규
한국관광연구학회 회장

내년이면 전국 최초로 KTX가 공항으로 연결된다. 신설 중인 무안 국제공항역은 전국 지방 공항 중 유일하게 공항 여객터미널과 KTX 정거장이 바로 연결돼 광주송정역에서 무안국제공항까지 1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무안국제공항 경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준공, 미주·유럽노선 취항 가능한 활주로 연장, 무비자 입국제 시행 등의 여건이 구축되면 명실공히 호남권 관문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국내 15개 공항 중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이 인천과 무안공항이다. 국내 대부분 공항은 인근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야간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야간통행금지의 항공기 버전이 무안국제공항에는 없어 24시간 운영할 수 있기에 장기적인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안국제공항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은 것 같다. 호남권 거점 공항의 역할을 기대하며 2007년 11월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이 계속되는 누적 적자와 불꺼진 국제공항의 오명을 벗지 못한 채 17년째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제공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용객은 국내선만 운영하는 광주 민간공항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동안 무안국제공항이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는 이유는 국내선 기능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해국제공항이나 청주국제공항 등 다른 지역의 국제공항도 이용객 80% 이상이 국내선을 이용했다. 이런 연유에서 국제선 이용객만으로 근근이 버텨온 무안국제공항으로서는 국내선 기능 연계가 공항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무안국제공항이 제대로 비상하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해답은 누구에게 있으며 누가 협력해야 할 것인가. 글로컬의 비전을 갖고 국내 다른 공항들이 잇따라 건립을 준비하거나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대만·동남아로 이어지는 최 단거리 항로에 존재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 적극적인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무안국제공항이 호남권 거점공항으로 활성화되면 무엇이 좋을까 생각해 본다.

첫째, 무안 공항복합도시 조성과 경제생태계 활성화로 서남권 도약의 계기와 관련돼 있다. 무안국제공항을 기반으로 공항복합도시가 조성돼 항공특화산단, 항공연관산업 육성, 항공·철도·도로 연계 통합네트워크 물류단지 조성 등이 이루어져 무안군은 물론 국토 서남권의 발전 지형을 크게 바꿔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안국제공항의 동남아노선 특화공항 운영으로 호남권 관광발전과 관련돼 있다. 지리적 인접 특성을 활용해 동남아노선의 정기노선과 부정기편 유치하며, '지역 안배 슬롯'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항공사와 협력하는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이 이뤄질 것이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의 국내 관광 수요 활성화는 서남해안 섬 관광, 제주수요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서남해안 섬 관광은 지금 추진 중인 흑산공항이 건설되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흑산 소 공항의 배후 거점 공항으로 역할을 담당하며 서남해안 섬·해양관광 수요도 개발하면서 영토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셋째, 무안국제공항을 관문으로 한 호남권 광역관광 거버넌스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달 호남권광역관광협의체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갖고 호남권 내 외국인 방문객 증대를 위해 광주·전남·전북의 협업 사업추진 논의를 시작했다. 호남권 광역지자체들이 똘똘 뭉쳐 관광상품을 공동개발하고 아시아 각국의 항공편 및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첫발인 셈이다.

KTX 무안국제공항역의 개장을 앞두고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만나 협의하고 진솔하게 대화해 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다. 아울러 군공항 이전 주체인 국방부는 국가 주도사업인 만큼 이전 대상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노력하고, 수용 지역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해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광주·전남의 관문 국제공항으로 활성화되도록 대승적 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역민들은 이제 무안국제공항이 보물단지 공항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독자투고

4계절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

우리나라는 완연히 봄이 시작되는 3-4월을 전후로 바람이 가장 세게 불고, 비 오는 날의 횟수가 적어 작은 불티만으로도 쉽게 화재가 발생한다. 사계절 중 산불에 가장 주의해야 할 계절은 바로 봄이다. 특히 부주의에 따른 원인이 대부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산할 경우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 물질의 휴대를 일절 금하고,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나 불 피우는 것도 일절 금해야 하며, 밭두렁·논두렁을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시에는 소방서 등에 사전신고를 하고 불길이 산림에 옮겨붙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평상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산불이 발생한 경우, 피해지를 복구하는 데 30년이 걸리며, 자연적인 생태계 회복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렇기에 오랜 기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잘 가꿔서 후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봄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진형·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광주 군공항 이전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를 주목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무안에서 소음 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린다. 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주최하고 광주연구원·전남연구원이 주관한다.

시도민들은 답보에 빠진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시하고 있다. 돌파구는 아니더라도 여론의 의미있는 변화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지난해 4월 군공항 특별법 제정 이후 일부 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나오기도 했던 상황이다. 대표적인 윈윈 사례이자 또 국가 사업으로 속절없이 골든타임이 흐르고 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비용과는 별개로 유치지역 개발을 위해 1조원을 파격 지원한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무안군의 태도가 강경하고 주민의 반발도 여전하다. 현재 집회신고까지 해놓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만나 합의한 공항 문제 5개 항 발표문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마련된 토론회다. 당시 단체장들은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소음 피해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및 인접 시·군 공동회의 개최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토론회는 군공항 소음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다. 그동안 피해 규모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던 만큼 충분한 내용을 청취하고 공유할 수 있다. 무안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우려되는 바는 무조건적 반대다. 지금까지도 많은 진통을 겪었다. 당장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라도 일어난다면 안 된다. 모두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군공항 소음 영향 분석 및 대책, 무안국제공항 주변 발전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가 이뤄지며, 주민 질의응답도 이어진다.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하면 정말 파국이다.

강 시장은 올해 군공항 이전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와 전남, 광주와 무안의 미래를 위한 상생 사업이다. 토론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다.

시민 안전 위협 일상화된 포트홀 관리 강화해야

'도로 위 지뢰'로 불리우는 포트홀이 광주 시내 곳곳에 여전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복구를 한다 해도 곧 반복되면서 통행하는 차량 파손 및 교통사고의 위험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항구적 대책이 없다고 손 놓을 일이 아닌 것 같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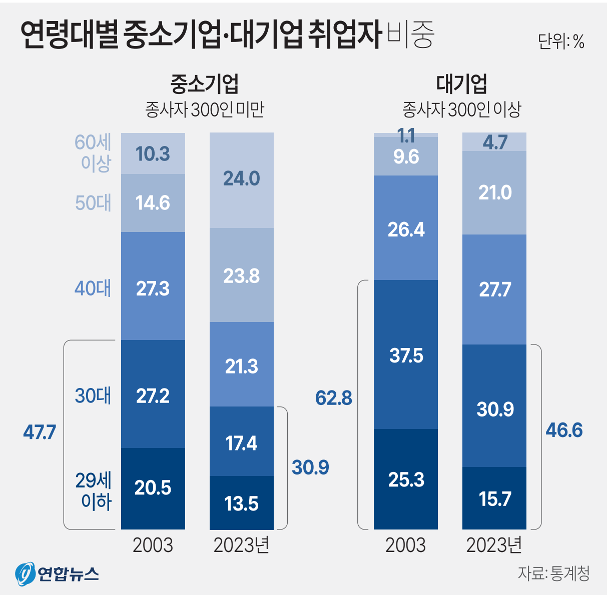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포트홀 1만7천여개를 보수했다. 또 관련 사고가 2천500여건에 이른다. 현재는 크기 및 깊이에 관계없이 도로의 성분과 유사한 아스콘으로 메꾸는 실정이나 다시 생겨나고 있다. 순차적으로 도로를 전면 포장하는 등 대대적 정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긴축 재정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에 맞춰 충분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속한 신고와 함께 즉각적인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포트홀(Pot Hole)은 통상 겨울철 제설 목적으로 염화칼슘이 뿌려진 도로를 차량이 지나가면서 생긴 압력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시화되는 추세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비가 자주 내리는 기상 현상과 도로 노후화 역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도 훼손이 심각한 곳부터 재포장 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포트홀이 빈발하는 지역·구간과 복구 위치를 공간정보망에 기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대체 복구를 하긴 하느냐'는 등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광주시가 고민하고 있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비단 올해 뿐 아닐 것이다. 광주만의 사안을 넘어서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현안이 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교통 편익 증진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은 3명 중 1명도 안돼…대기업과 대조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층은 3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절반 가까운 취업자가 청년층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천명으로 전체의 30.9%에 그쳤다. 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로 각각 집계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24.0%를 차지했고 이어 50대(23.8%), 40대(21.3%), 30대, 29세 이하 순이었다. 이에 반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이 143만9천명으로 46.6%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중소기업의 1.5배에 달하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취업자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30대로 30.9%였고 이어 40대(27.7%), 50대(21.0%), 29세 이하(15.7%), 60세 이상(4.7%) 순이었다. 소위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30-40대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58.6%로 중소기업(38.7%)의 1.5배였다. 반면 60세 이상 비중은 중소기업(24.0%)이 대기업(4.7%)의 5배를 웃돌았다. 취업자도 갈수록 고령화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4.0%로 20년 전인 2003년(10.3%)과 비교하면 2.3배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경영지원국 650-2011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